

‘800점 미만 주지 못한다’ 직할교구 인사고과제 도입

올 상반기 공찰부터...사설사암은 2011년 적용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제가 올 상반기에 시행된다.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직할교구 총회에서 인사고과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공개됐다. 직할교구 총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직할교구 인사고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인 직할교구 주지인사를 통하여 종도들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할교구 총회에 보고된 안에 따르면 공찰은 올해 상반기에 인사고과제를 시행하며, 사설사암은 내년도에 도입한다. 총무원장, 포교·복지, 재정, 불사, 심의위원회 의결 등 5개 분야에 걸쳐 인사평가를 하게 될 전망이다. 평가는 갑·을·병·정·무로 구분하며 총점 950점에서 1000점일 경우 ‘우선 임명’ 되고, 800~940점은 ‘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80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주지로 임명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은 우선 직할교구 공찰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인사고과제가 시행되는 직할교구 사설사암은 700점 미만이면 주지 소임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를 경우 사설사암 장건주는

신규 주지를 추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할교구 사찰은 매년 1회 수입과 지출, 신도현황, 법회참석 현황, 포교 및 복지 현황, 총무원 현황 등을 담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구본사는 시행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지만, 총무원은 향후 종도들의 의견이 긍정적이라면 평가가 나올 경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도들 신뢰’ 높아져 ‘포교 활성화’ 기대**
종량제정 등 후속조치”

인사평가 방법은 임기만료일 3개월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주지 임기 내 업적을 평가하게 되며, 공찰은 매년 인사평가를 진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포교부장 등 4인과 총무원장 스님이 추천한 2인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주지 인사에 대한 종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연스

럽게 포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주지 인사를 과거보다 객관화하게 될 것”이라며 “주지 인사고과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제는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지 인사를 통해 사찰 활성화를 이루고, 특히 포교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찰의 활동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직할교구와 사찰단위 신도회를 구성해 수도권 포교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직할교구 총회뿐 아니라, 지난 11일 열린 종단발전위원회에서도 “사찰 재정을 투명화하고, 열심히 포교하고 수행하는 것이 인사고과제의 목적”이라면서 “재정확충·신도조직 확대·어린이 포교 등을 통해 수도권 포교 활성화와 불교중흥을 이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총무원은 후속 조치로 직할교구 사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가는 한편, 종량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자비나눔, 우리부터 실천하자”

‘함께 행복해 지는 세상’ 발원... ‘종단모금 행사’ 열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포교원장 혜승스님과 함께 지난 10일 열린 ‘2010 자비나눔 확산을 위한 종단 모금행사’에서 모금함에 보시금을 넣고 있다.

“우리 종단에서 일하는 부실장, 국장 스님들은 ‘부담감’을 안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해달라. 재가 총무원들은 자판기 커피 석잔 값만 마음을 내주길 바란다. 자비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 10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2010 자비나눔 확산을 위한 종단 모금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 소임자들이 먼저 나서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자비정신을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며 100여명의 모금행렬을 끝까지 지켜 보면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자비나눔 확산을 위한 발원문 낭독 시간도 가졌다. 총무원 사회부 오영원 주임은 총무원을 대표하여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인연화합 속에

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음에 믿기에 오늘 짓게 될 보시의 공덕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가자 전원은 자비의 연꽃배지를 서로 가슴에 달아주면서 자비문화 확산을 다짐했고 ‘자비나눔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먼저 실천한다’는 우렁찬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에도 각종 자비나눔 사업과 선재의 선물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11억원이 넘는 기금을 모금한 바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종단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자비나눔의 축제로 승화시켜 국민과 함께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정은 기자 kmato77@bulgyo.com

“국제구호 활동 모범단체”

조계종 아이티 의료봉사단 약조건 불구
 5일간 총 1137건 진료...지난 9일 회향

지진 피해로 고통 받는 아이티 주민들을 위해 조계종이 파견한 의료봉사단이 지난 9일(현지시간) 진료를 끝으로 5일간의 구호활동을 완수하며 회향했다.

조계종 아이티 긴급구호 의료봉사단(단장 묘장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에 위치한 쾨펜 지역에서 총 1137건의 진료를 펼친 것으로 집계됐다. 재진료 환자들을 고려해도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한 것이다. 추가 지진의 발생 가능성과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다.

특히 다른 의료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위험지역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점과 난민촌 의료 진료 홍보, 다른 구호단체와의 정보 교류 활동 등은 조계종 봉사단의 활동이 더욱

주목되는 점이다. 봉사단은 활동기간 동안 외과, 소아과, 성인 진료 부분으로 분야를 세분화했으며, 예상되는 질환 처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응급치료를 물론 현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기, 장염 등 만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현지 자원봉사자 및 구호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로 봉사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펼쳤다.

이에 대해 단장 묘장스님은 “봉사단은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아이티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다른 단체들에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의료진을 이끌었던 김경옥 동국대일산병원 마취과 교수도 “향후 국제구호 활동의 방향을 마련하는데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염태규 기자

설 휴무로 2600호는 2월24일 발행됩니다.

“종단발전 위해 함께 노력”

종단발전위 제2차 회의 열려

조계종 종단발전위원회가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활동 방향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을 대표한 총장·영배·향적·지홍·성직·장적·영담·원담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

승스님은 “종단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종단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위원회가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 4개년 발전계획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제 △종단 사찰 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 △신도교육과 조직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지 인사고과제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과 함께 객관성을 띤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찰 토지처분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종도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무원은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발전위원회는 매달 한차례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아이티 구호 성금 모금 ‘아름다운 동행’ 잇따라

아이티 성금 동참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지역 곳곳에서 아이티 성금을 모아서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제5교구본사 범주사(주지 노현스님)는 1500만원을,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범만스님)는 1191만원,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영조스님)는 1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올해로 20년째 자비행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마산창원불교연합회도 1100만원을 직접 전달했고, 무진선원 주지 도선스님과 신도회장이 직접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아이티 구호기금 동참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 **명단 3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먼 길까지 오셔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배석한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올해를 기부재단 활성화의 해로 삼고 그동안 산별적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기부문화를 조직적으로 종단 차원에서 승화시킬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kmato77@bulgyo.com

팔만대장경을 모신 민족의 성지 범보종찰 해인사

해인사승가대학 입학 모집 안내

불기2554년 해인사승가대학 개설 과목

모집대상

- 신입생 00명
- 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2학년 0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자필) 1부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3. 주민등록등본 2부
4. 건강진단서(행차교육원 당해연도 수료자제외) 2부
5. 은사스님 추천서 1부
6. 은사스님 인적사항 [법명, 속명(한글·한자), 당호, 주민등록번호, 승적번호]
7.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전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준비물

1. 사진(3×4, 만의가사 복사) 8매
2. 대가사(사미는 만의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3. 주민등록 주소 이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필수사항)

전형방법

- 서류 접수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불기2554(2010)년 3월 27일(토요일)
 신입학: 불기2554(2010)년 4월 1일(목요일)

입학시험

- 입학시험
 전입학, 편입학, 재입학: 서류전형
 신입학: 불기2554(2010)년 4월 2일(금요일) 오전 8시
 (시험과목: 기초교리, 부처님의 생애, 초발심자경문)

- 합격자발표: 불기2554(2010)년 4월 2일(금요일) 오후 6시

- 입학식: 불기2554(2010)년 4월 3일(토요일)

문의처

678-895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승가대학
 전화 (055)934-3081, 3100

불기2554년 2월

해인사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해인사 주지 선각 · 해인사승가대학 학장 백강법진

